

# “불교명상음악 대중화 · 세계화 발원”

###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스님

### 수태고지(受胎告知)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화가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가 1489년에 그린 이 그림은 신의 계시(啓示)를 맡은 천사인 가브리엘(Gabriel)이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그림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라 한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수태고지(1489년)

많은 서양의 화가들이 즐겨 그린 이 주제는 성모(聖母) 마리아가 구교인 카톨릭에서 예수와 같은 신성(神聖)을 지닌 신앙의 대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무명시대(無名始胎), 즉 마리아가 남성과의 성적인 교류 없이 원죄가 없는 순결한 임신으로 예수를 낳았기에 예수의 신성성(神聖性)을 함께 보증하는 사실(史實)을 그린 그림이다.

아래 버리고 왔으나, 방에서 울고 있는 베시 처녀가 안쓰러워 다시 아기를 버린 곳에 찾아가니 백학 한 마리가 아기를 품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보곤,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늘이 점지한 신비한 아기라는 것을 알고 키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의 신성함을 지닌 때에는,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로서의 순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곧 예수는 온갖 악역을 지닌 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아들이 아닌, 완벽한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아이들 밖에서 주위 온 것처럼 동네사람들에게 알리고는 베시 처녀가 키우도록 하고, 준수하고 명민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타락상(托鉢僧)이 쌀을 구하러 들러서 베시 가족에게 “아이가 15세가 되기 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니 스님을 만들면 수명장수하고, 나라에 명성을 날리는 큰스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이를 절로 보내는데, 이 아이가 바로 송광사의 2대 조사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 스님이다.

### 진각국사 · 선각국사 탄생설화

### 동정녀 마리아 · 예수 설화와 비유

주어 신(神)으로서의 예수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그림인 것이다.

신라 말기 풍수의 대가인 선각국사(先覺國師) 도선(道詵: 827~898, 전남 영암 출생) 스님도 비슷한 탄생설화를 지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굴산신문 개조 범일(梵日) 국사도 굴산(窟山)의 한 양가 처녀가 석천(石泉)의 물을 먹고 잉태해 14개월 만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가 곧 범일이라는 것이 강릉의 사료인 (임영지(臨瀛誌))에 있다. 현재도 그 석천이 학산 굴산사지(窟山寺址)에 있다.

한국불교사에도 동정녀(童貞女)에게서 태어난 큰스님들이 많다. 야사(野史)라고 하기에는 실증적인 지역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서 큰스님들의 거룩함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한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和順邑)에 가면, 차천(車泉)이라는 샘물이 있다. 항상 맑고 시원한 물맛을 지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고 한다. 고려 중엽 이 마을에 배(裴)씨 성을 가진 호장이 살았다. 나이 40을 넘어 딸을 낳아서 금지육업으로 키우는데, 어느 해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호장은 감옥에 갇히고 만다.

아버지를 옥바라지 하면서 매일 샘물에서 물을 길어 죽을 췌 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드리곤 하던 배씨 효녀는 어느 날 샘물에 떠있는 맛있는 생김 오이를 먹고는 태기가 있어서 점점 배가 불러가서 아버지인 호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열 달 후에 옥동자를 분만하게 됐다. 부모는 딸을 다그쳐서 남자를 만난 사실을 추궁했지만, 딸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고, 단지 샘물에 떠있던 오이를 먹었을 뿐이라고 한다.

진각국사 혜심 스님이 생전에 새해를 맞이해 지었던, 정단(正旦)이라는 시(詩)로 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전남 화순군 화순읍(和順邑)에 가면, 차천(車泉)이라는 샘물이 있다. 항상 맑고 시원한 물맛을 지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고 한다. 고려 중엽 이 마을에 배(裴)씨 성을 가진 호장이 살았다. 나이 40을 넘어 딸을 낳아서 금지육업으로 키우는데, 어느 해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호장은 감옥에 갇히고 만다.

新年佛法爲君宜(신년불법위군신) 새해에 부처님 진리말씀을 그대를 위해 널리 퍼리니 大地風流氣浩然(대지풍류기호연) 대지의 바람과 이 호연지기로써 宿蔭舊殃湯沃雪(숙영舊殃湯沃雪) 과거의 업장과 오랜 재앙을 모두 눈처럼 녹이고, 神光遍照日昇天(신광편조일승천) 신령한 빛 널리 비취 해처럼 하늘에 오르기를.

결국 아기를 읊어서 떨어진 마을의 정자나무

新佛法爲君宜(신년불법위군신) 새해에 부처님 진리말씀을 그대를 위해 널리 퍼리니 大地風流氣浩然(대지풍류기호연) 대지의 바람과 이 호연지기로써 宿蔭舊殃湯沃雪(숙영舊殃湯沃雪) 과거의 업장과 오랜 재앙을 모두 눈처럼 녹이고, 神光遍照日昇天(신광편조일승천) 신령한 빛 널리 비취 해처럼 하늘에 오르기를.



동하성 심보물관장

### 인터뷰

### 신호철 명상음악전문회사 콘텐츠코리아 대표

“명상”은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행 중 하나다. 명상은 외부에 집착하는 의식을 안으로 돌려 마음을 정화시킨다. 또 심리적 안정을 이루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주어 몸의 건강을 돌보게 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의 명상에 대한 관심은 크다.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에게 명상은 그리 쉽지 않은 않다. 몸도 마음도 쉴 새 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가만히 앉고 고요히 정신을 집중하기가 단 1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쉽게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명상음악 전문회사 콘텐츠코리아의 신호철 대표(54·사진)는 “명상음악을 통해 쉽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며 명상음악을 권한다.

신 대표는 콘텐츠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명상음악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콘텐츠코리아가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은 200여 장. 이 가운데 60여 장이 명상음악반들이다.

학창시절부터 올드팝과 월드 음악을 좋아한 신 대표는 클래식, 펙크 음악, 이탈리아 칸초네, 그리스 음악, 뉴에이지 음악 등을 들으며 음악들을 명상과 연결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파퓰러의 캐논은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복명상 수련법을 연구하는 독일의 예방의학자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리듬의 음악이 명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호철 대표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월드 뮤직, 펙크, 인디언 피리, 티베트 음악 등을 비롯한 뉴에이지적인 명상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명상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명상 음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죠.”

2006년 콘텐츠코리아를 설립한 신호철 대표는 재즈, 뉴에이지, 월드 뮤직 발매부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콘텐츠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명상음악을 본격적으로 발매했다.

신 대표가 라이선스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발매한 앨범들은 데바 프레말(독일), 나왕케축(티베트), 크레이그 프루먼(영국), 사츠 데브(인도), 메리 영블러드(미국) 등으로 전 세계 명상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의 데바 프레말은 달라이 라마, 에크하르트 톨레 등 세계 명사들이 극찬한 뮤지션이다. 그의 음악은 만트라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높은 예술성과 감각적인 그루브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츠 데브는 인도 전통악기 반수리로 인도 명상음악인 라가를 들려주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준다.

### 명상 초보자에게 명상 음악 효과 뛰어난

### 독경 위주 불교음악 시장 폭 넓히고 싶어

다. 그레미상을 2번 수상한 북미 인디언 피리연주자인 메리 영블러드는 영성적이고 예술적인 경지의 음악을 들려준다.

신호철 대표는 세계에서 각광받는 훌륭한 앨범들이 국내 불교음악시장이 협소한 까닭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불교음악시장은 구매층이 다양하지 않아 음반을 내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나 스님들이 보시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전부니까 명상음악의 대중화는 아직 멀다고 봐야죠.”

사정이 이렇지만 신호철 대표는 명상음악 만큼은



꾸준히 발매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의 명상음악가들을 발굴해 해외 명상음악업계에 소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독경 위주의 불교음악시장의 폭을 넓혀 불자·비불자, 연령 구분 없이 모두 불교·명상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정신 수양에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 발매하고 싶네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실력 있는 명상음악가들을 발굴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채널을 통해 불교명상음악을 전 세계에 배포하고 싶습니다.”

글=이이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피리와 공명으로 명상하는 이색 음반출시

### 나왕 케축, 켄 데이비스 명상음악

대나무 피리와 진언(만트라)을 접목하고 파동과 소리공명을 이용하는 등 독창적 시도로 탄생한 이색 명상음악이 발매됐다.



나왕 케축의 티베트 명상음악(좌)과 크리스탈 울림 주발 각성 명상음악(우)

콘텐츠코리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베트 대나무 피리 연주자 나왕 케축의 ‘티베트 명상음악’, 그리고 사운드테라피스트인 켄 데이비스의 ‘크리스탈 울림 주발 각성 명상음악’을 국내에 발매했다.

### 나왕 케축의 20년의 여정을 담은

### ‘티베트 명상음악(Tibetan Meditation Music)’

그레미상 지명자이자 슬러 출신인 나왕 케축이 자신의 음악여정 20년을 정리하는 앨범이다.

11곡이 담긴 이번 앨범에서 나왕 케축은 명상적인 티베트 대나무 피리와 영적인 진언의 평온하고 장엄

양한 악기로 연주했다”고 설명했다.

### 신비한 파동과 공명을 이용한 명상음악 ‘크리스탈 울림 주발 각성 명상음악’

크리스탈 울림 주발은 크리스탈(수정)을 소재로 과학적으로 소리를 조율해 만든 새로운 개념의 악기이다. 크리스탈 울림 주발에서 발생하는 공명음의 독특한 주파수는 두뇌의 알파(α)파를 증장시킨다.

사운드 테라피스트인 켄 데이비스는 계곡의 자연 소리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 앰비언트(Ambient) 사운드와 크리스탈 울림 주발의 하모니를 연주했다. 이 앨범은 우리 몸과 마음, 정신을 조화롭게 해 힐링센터 등에서 명상수련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켄 데이비스는 “멜로디·리듬이 근간이 되는 뮤직 테라피와 환경음·자연음이 근간이 되는 사운드 테라피의 음악이면서 동시에 크리스탈 주발이라는 소리 도구의 특성을 도입했다”며 “다양한 크리스탈 주발의 음향들 중 치유력을 가진 특별한 주파수의 음역을 부드럽게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법성계 불자 건강카드 12**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내장**

만고의 진리인 법성계에 파동에너지 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나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계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법성계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중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 미국 의류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